

④ 「정읍사」는 백제 시대의 가요이고, 「십 년을 경영호여」는 조선 시대의 시조이다. 화자가 바라거나 지향하는 바를 살피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.

정읍사/십 년을 경영호여

정읍사

어느 행상인의 아내

전강(前腔)

들하 노피곰 도드샤

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

어귀야 어강도리

소엽(小葉)

아으 다롱디리

후강전(後腔全)

저재[●] 녀러 신고요

어귀야 즌[●] 덕[●] 드덕올세라

어귀야 어강도리

과편(過篇)

어느이다 노코시라

금선조(金善調)

어귀야 내 가는 덕[●] 점그를세라

어귀야 어강도리

소엽(小葉)

아으 다롱디리

— 「악학궤범」

- 전강 국악 형식에서 세 마디로 나눌 때, 처음 가락의 마디.
- 소엽 우리 전통 음악의 한 형식인 엽의 하나.
- 후강전 국악 형식에서 세 마디로 나눌 때, 맨 나중 가락의 마디.
- 저재 '저자'의 옛말. '저자'는 '시장'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.
- 즌 덕 잔 데.
- 과편 향악곡의 한 부분.
- 금선조 「정읍사」의 한 악절 이름.

[현대어 풀이]

달님이시여, 높이높이 돋으시어

아, 멀리멀리 비치시라!

어귀야 어강도리

아으 다롱디리

시장에 가 계신가요.

아, 진 곳을 디딜까 두려워라!

어귀야 어강도리

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.

아, 내 임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!

어귀야 어강도리

아으 다롱디리

— 임기중 옮김

십 년을 경영하여

송순

십 년(十年)을 경영(經營)하여 초려 삼간(草廬三間) 지어 내니
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(淸風) 혼 간 맛져 두고
강산(江山)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

* 초려 초가. 짐이나 갈대 따위로 지붕을 인 집.

—『청구영언』



송순(1493~1583)

조선 중기의 문신·시인. 호는 면앙정(僊仰亭)이며, 강호가도(江湖歌道)의 선구자로 한시와 시조, 가사에 능하였다. 작품으로 「면앙정가」, 「오류가」 등이 있다.



역량을 기르는

학습 활동

이해 활동

1

「정읍사」와 「십 년을 경영하여」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.

(1) 제시된 「정읍사」의 배경 설화를 참고하여 시구에 담긴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보자.

정읍은 전주(全州)의 속현이다.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의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,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. 세상에 전하기는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. — 「고려사 악지」에서

시구	화자의 정서
들하 노피곰 도드샤 /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	
즌 덕을 드디웁세라, 내 가논 덕 점그를세라	

(2) 「십 년을 경영하여」에서 묘사한 ‘초려 삼간’의 모습을 그려 보고,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.

→

지향하는 가치

(3) 두 작품에 공통으로 쓰인 소재를 찾고 각 작품에서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.

정읍사	공통 소재	십 년을 경영하여
←		→

목표 활동

2

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생각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. 🗣️



「정읍사」의 화자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은 것 같아. 왜 그랬을까?
나라면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을 텐데.

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. 나는 「십 년을 경영하여」의 화자가 초가를 짓기까지
왜 십 년이나 걸렸는지가 궁금해.



나도 궁금하네. 그리고 작가가 실제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알고 싶어. 하루 이틀도
아니고 매일 그런 초가에서 지냈다면 심심하지 않았을까?

3

다음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작품이다. 제시된 활동으로 시조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자.

- 장지 빙과 빙 사이, 또는 빙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.
- 돌저귀 돌저귀. 문짝을 문설주에 달아 여닫는 데에 쓰는 두 개의 쇠붙이.

창(窓) 내고자 창(窓)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(窓) 내고자
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에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목결새 크나큰 장도
리로 독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(窓) 내고자
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흥노라
- 「청구영언」

(1) 「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」에서 ‘창’이 의미하는 바를 화자의 처지와 관련지어 말해 보자.

도움

시조는 고려 말부터 현재까지 항
유되고 있다. 조선 전기에는 양반
사대부와 기녀들이 평시조의 형
식에 맞추어 관념적인 내용의 노
래를 주로 불렀고, 조선 후기에는
전문 가객과 평민들까지 작자층
이 확대되어 한 장 이상이 길어진
사설시조의 형식으로 일상의 소
재를 자유롭게 표현하였다.

(2) 「십 년을 경영하여」와 「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」를 비교해 보자.

	십 년을 경영하여	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
공통점		
차이점		